

2025년 7월 10일 공보 2025-07-15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25년 7월 10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김병국, 차장 최연교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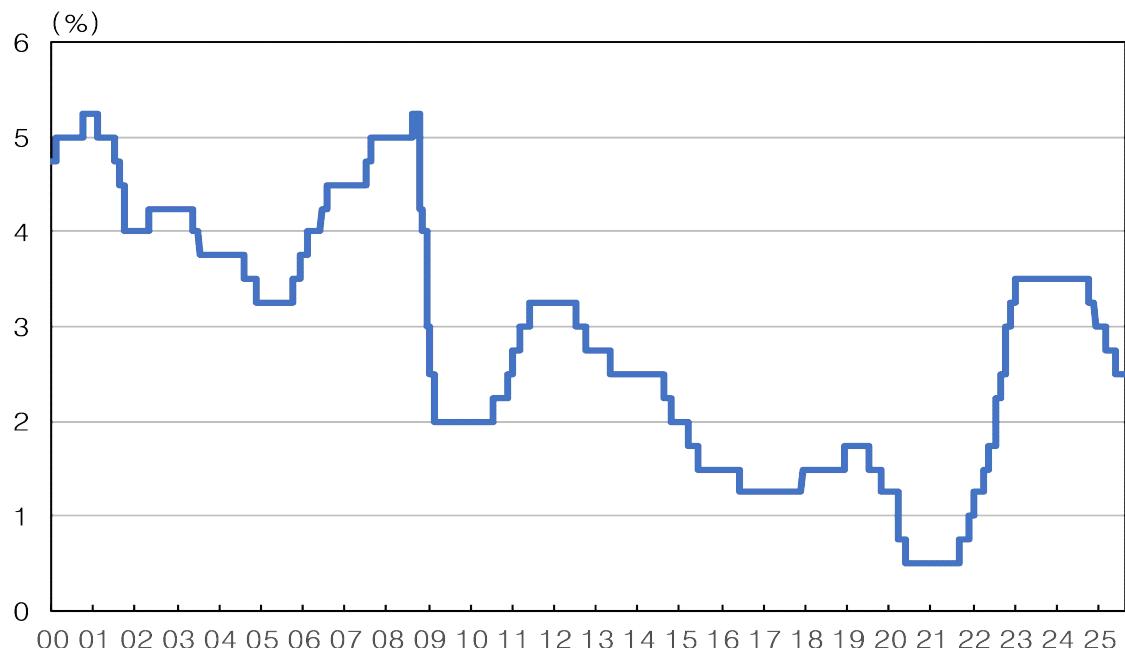
(붙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¹⁾ 추이



주: 1)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 목표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를 보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높은 관세율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이다.

세계경제지표

	2023	2024	24.3/4	4/4	25.1/4	2/4	25.4월	5월	6월
미국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2.9	2.8	3.1	2.4	-0.5	..	-	-
	소매판매 ¹⁾ (전기비, %)	3.4	3.0	1.4	1.8	0.4	..	-0.1	-0.9
	산업생산 ¹⁾ (전기비, %)	0.2	-0.3	-0.1	-0.3	1.1	..	0.1	-0.2
	ISM제조업 ²⁾ (기준=50)	47.1	48.2	47.3	48.2	50.1	48.7	48.7	48.5
	실업률 ¹⁾ (%)	3.6	4.0	4.2	4.1	4.1	4.2	4.2	4.1
	비농기취업자수증감 ¹⁾ (전기비 만명)	334.3	208.1	33.8	50.9	52.1	41.7	15.8	14.4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4.1	2.9	2.6	2.7	2.7	..	2.3	2.4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4.8	3.4	3.3	3.3	3.1	..	2.8	2.8
유로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0.5	0.9	1.6	1.2	2.5	..	-	-
	소매판매 ¹⁾ (전기비, %)	-1.9	1.2	1.0	0.5	0.2	..	0.1	-0.7
	산업생산 ¹⁾ (전기비, %)	-1.7	-3.0	-0.4	0.0	1.9	..	-2.4	..
	제조업PMI ²⁾ (기준=50)	45.0	45.9	45.5	45.4	47.6	49.3	49.0	49.4
	실업률 ¹⁾ (%)	6.6	6.4	6.3	6.2	6.3	..	6.2	6.3
	수출 ¹⁾ (전기비, %)	-0.8	0.5	-0.8	0.6	7.6	..	-8.2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5.4	2.4	2.2	2.2	2.3	2.0	2.2	1.9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4.9	2.8	2.8	2.7	2.6	2.4	2.7	2.3
일본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1.4	0.2	0.9	2.2	-0.2	..	-	-
	소매판매 ¹⁾ (전기비, %)	5.7	2.3	0.8	0.2	1.5	..	0.7	-0.2
	산업생산 ¹⁾ (전기비, %)	-1.4	-3.0	0.3	0.4	-0.3	..	-1.1	0.5
	제조업PMI ²⁾ (기준=50)	49.0	49.2	49.5	49.3	48.7	49.4	48.7	49.4
	수출 ¹⁾ (전기비, %)	2.8	6.0	0.1	0.5	3.2	..	-2.5	0.1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3.2	2.7	2.8	2.9	3.8	..	3.6	3.5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2.5	1.9	1.6	1.6	1.5	..	1.6	1.6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5.4	5.0	4.6	5.4	5.4	..	-	-
중국	소매판매(전년동기비, %)	7.2	3.5	2.7	3.8	4.6	..	5.1	6.4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4.6	5.8	5.0	5.6	6.5	..	6.1	5.8
	제조업PMI ²⁾ (기준=50)	49.9	49.8	49.4	50.2	49.9	49.4	49.0	49.5
	수출(전년동기비, %)	-4.7	5.8	5.9	9.9	5.7	..	8.1	4.8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0.2	0.2	0.5	0.2	-0.1	0.0	-0.1	-0.1
	생산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3.0	-2.2	-1.8	-2.6	-2.4	-3.2	-2.7	-3.3
	글로벌 교역량증가율 ⁴⁾ (전년동기비, %)	-1.1	2.3	3.0	3.0	5.4	..	2.9	..
	주: 1) 계절조정 기준	2)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3) 역내거래 제외

4) 상품수입량 기준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동지역 긴장 완화, 미·중 무역협상의 일부 진전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약화되면서 주요국 주가가 큰 폭 상승하였다. 미 장기 국채금리는 연준의 금리인하 재개 기대 등으로 소폭 하락하고 미 달러화는 약세 흐름을 지속하였다.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결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지표

		2024	25.3월	4월	5.28일	5월	6월	7.9일
국채금리 ¹⁾ (%)	미국(2년물)	4.24	3.88	3.60	3.99	3.90	3.72	3.84
	미국(10년물)	4.57	4.21	4.16	4.48	4.40	4.23	4.33
	독일(10년물)	2.37	2.74	2.44	2.55	2.50	2.61	2.67
	영국(10년물)	4.57	4.68	4.44	4.73	4.65	4.49	4.61
환율 ¹⁾	달러인덱스	108.5	104.2	99.5	99.9	99.3	96.9	97.6
	신흥시장국 ²⁾	42.8	44.6	45.2	45.5	45.6	46.4	46.0
	엔/달러	157.2	150.0	143.1	144.8	144.0	144.0	146.3
	위안/달러	7.30	7.25	7.27	7.19	7.19	7.16	7.18
주가 ¹⁾³⁾	전세계	841.3	827.2	833.5	876.4	879.5	917.9	924.3
	선진국	3,707.8	3,628.6	3,655.5	3,845.7	3,863.5	4,026.4	4,055.9
	신흥시장국	1,075.5	1,101.4	1,112.8	1,163.8	1,157.3	1,222.8	1,227.9
VIX ¹⁾		17.4	22.3	24.7	19.3	18.6	16.7	15.9
CDS프리미엄 ^{1)(bp)}	신흥시장국	172.5	184.5	198.9	170.5	172.8	156.8	155.6
	중국	66.0	52.0	61.9	51.7	51.4	50.5	46.5
	한국	37.8	38.7	32.5	29.6	28.8	26.0	24.9
유가 ¹⁾ (달러)/배럴	WTI ⁴⁾	71.7	71.5	58.2	61.8	60.8	65.1	68.4
	Brent ⁵⁾	74.1	77.2	63.2	65.5	63.9	68.0	72.4
	Dubai ⁵⁾	75.1	73.6	62.1	62.6	62.6	65.6	70.5
신흥국 글로벌펀드자금 유입 (기간중, 억달러)		-67.9	40.2	175.7	-2.4 ⁶⁾	-2.4 ⁶⁾	277.9 ⁷⁾	25.7 ⁸⁾

주: 1) 기말 기준 2) JPMorgan 신흥국지수 기준 3) MSCI 기준
 4) 선물 기준 5) 현물 기준 6) 25.5.1~25.5.28일 기준 7) 25.5.29~25.7.2일 기준
 8) 25.6.26~25.7.2일 기준

[실물경기]

□ 국내경제는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소비가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개선되고 수출 증가세도 이어지면서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소비가 경제심리 개선, 추경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수출은 미 관세부과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성장경로는 대미 무역협상의 전개 상황,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실물경제지표

	2023	2024	24.3/4	4/4	25.1/4	2/4	25.4월	5월	6월
GDP 성장률 ¹⁾	1.6	2.0	0.1	0.1	-0.2	..	-	-	-
(민간소비)	2.0	1.1	0.4	0.2	-0.1	..	-	-	-
(설비투자)	-0.2	1.7	5.4	0.8	-0.4	..	-	-	-
(건설투자)	-0.5	-3.3	-3.6	-4.1	-3.1	..	-	-	-
소매판매액지수 ²⁾	-1.3	-2.1	0.7	-0.4	0.4	..	-0.9	0.0	..
설비투자지수 ²⁾	-4.8	2.9	10.2	-1.8	-1.7	..	-0.5	-4.7	..
건설기성액 ²⁾	7.8	-4.7	-3.8	-5.1	-6.4	..	-1.4	-3.9	..
수출(통관) ³⁾	-7.5	8.1	10.5	4.2	-2.3	2.1	3.5	-1.3	4.3
- 일평균 ³⁾	(-6.8)	(8.1)	(10.5)	(2.7)	(2.3)	(2.1)	(-0.8)	(1.0)	(6.8)
제조업생산지수 ²⁾	-2.6	4.2	-0.8	2.1	0.1	..	-0.6	-3.0	..
서비스업생산지수 ²⁾	3.4	1.1	-0.3	0.7	0.3	..	-0.1	-0.1	..
소비자심리지수 ⁴⁾	97.4	100.0	101.5	96.9	93.3	101.4	93.8	101.8	108.7
기업심리지수 ⁴⁾⁵⁾	90.5	92.8	93.4	90.3	90.3	94.1	93.1	94.7	94.4
취업자수 증감 ³⁾⁴⁾	32.7	15.9	14.6	5.2	15.5	..	19.4	24.5	..
고용률(계절조정계열)	62.6	62.7	62.7	62.5	63.0	..	63.1	62.9	..
실업률(계절조정계열)	2.7	2.8	2.5	3.0	2.8	..	2.7	2.7	..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실적 CBSI 기준

[물 가]

□ 국내 물가는 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지속, 농산물·석유류 가격 기저효과 등으로 2.2%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전월과 같은 2.0%를 나타내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4%로 전월(2.6%)보다 낮아졌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중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각각 1.9%)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물가지표

(전년동기비, %)

	2023	2024	24.3/4	4/4	25.1/4	2/4	25.4월	5월	6월
소비자물가 ¹⁾	3.6	2.3	2.1	1.6	2.1	2.1	2.1	1.9	2.2
	-	-	(0.4)	(0.2)	(1.2)	(0.2)	(0.1)	(-0.1)	(0.0)
▪ 농축수산물	3.1	5.9	3.4	1.6	1.2	1.1	1.5	0.1	1.5
▪ 공업제품	2.6	1.5	1.4	0.6	2.0	1.6	1.5	1.4	1.8
(석유류)	-11.1	-1.1	0.0	-5.2	5.4	-1.3	-1.7	-2.3	0.3
(석유류 제외)	4.8	1.9	1.6	1.4	1.5	1.9	1.9	1.9	2.0
▪ 전기·수도·가스	20.2	3.5	2.4	3.0	3.1	3.1	3.1	3.1	3.1
▪ 서비스	3.3	2.2	2.2	2.1	2.2	2.4	2.4	2.3	2.4
(공공서비스)	1.3	1.7	1.5	0.9	1.0	1.3	1.3	1.3	1.2
(개인서비스)	4.8	3.0	3.0	2.9	3.1	3.3	3.3	3.2	3.3
근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3.4	2.2	2.1	1.8	1.9	2.0	2.1	2.0	2.0
(관리물가 ²⁾ 제외)	3.9	2.1	2.1	1.9	1.9	2.0	2.0	1.9	2.0
▪ 농산물·석유류 제외	4.0	2.1	2.0	1.8	2.0	2.4	2.4	2.3	2.4
기대인플레이션율 ³⁾	3.5	3.0	2.9	2.8	2.7	2.6	2.8	2.6	2.4

주: 1) ()내는 전기비

2) 시장에서의 수요·공급보다는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가격으로, 공공서비스, 전기·수도·가스, 담배, 급식 등의 가격을 포함

3)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금융안정]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가가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 등에 따른 투자심리 호전으로 큰 폭 상승하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채발행 확대 가능성 등으로 높아졌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아 1,300원대 중후반에서 상당폭 등락하였으며 앞으로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내금융지표

	2024	25.3월	4월	5.28일	5월	6월	7.9일
국고채금리 ¹⁾²⁾ (3년물, %)	2.60	2.57	2.27	2.31	2.35	2.45	2.48
국고채금리 ¹⁾²⁾ (10년물, %)	2.86	2.77	2.56	2.71	2.79	2.81	2.85
통안증권금리 ¹⁾²⁾ (91일물, %)	2.96	2.65	2.49	2.51	2.51	2.44	2.43
CP금리 ¹⁾²⁾ (91일물, %)	3.58	3.00	2.93	2.93	2.79	2.73	2.73
회사채금리 ¹⁾³⁾ (3년, AA-, %)	3.28	3.12	2.85	2.86	2.88	2.95	2.97
(3년, BBB-, %)	9.05	8.89	8.61	8.64	8.66	8.78	8.79
KOSPI ¹⁾	2,399.5	2,481.1	2,556.6	2,670.2	2,697.7	3,071.7	3,133.7
원/달러 환율 ¹⁾	1,472.5	1,472.9	1,421.0	1,376.5	1,380.1	1,350.0	1,375.0
원/100엔 환율 ¹⁾	948.8	989.7	996.8	953.5	958.8	938.1	935.4
외국인 주식순매수(조원)	-2.3	7.1	11.0	9.4 ⁴⁾	10.9	3.9	0.1 ⁵⁾

- 주택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이 과열양상을 나타내다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시행 이후 다소 진정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은 부진을 지속하였다. 가계대출은 그간 확대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계·기업대출 및 주택가격 지표

	2023	2024	24.3/4	4/4	25.1/4	2/4	25.4월	5월	6월
은행 기업대출 증감(조원)	77.4	67.4	19.4	-1.1	9.2	18.8	14.4	8.0	-3.6
▪ 대기업	31.9	26.7	7.1	-1.2	5.7	8.4	6.7	5.4	-3.7
▪ 중소기업	45.5	40.6	12.2	0.1	3.5	10.3	7.6	2.6	0.1
은행 가계대출 증감 ¹⁾ (조원)	36.9	46.0	20.2	5.3	4.4	16.1	4.7	5.2	6.2
▪ 주택담보대출 ¹⁾	51.6	52.1	19.8	5.8	7.6	13.0	3.7	4.1	5.1
▪ 기타대출 ²⁾	-14.5	-5.9	0.5	-0.4	-3.2	3.2	1.0	1.1	1.1
주택 매매가격 ^{3)(%)}	-3.6	0.1	0.6	0.0	-0.1	..	-0.0	-0.0	..
▪ 수도권 ³⁾⁴⁾	-3.6	1.4	1.3	0.3	0.1	..	0.1	0.1	..
(서울) ³⁾	-2.0	3.2	2.1	0.6	0.7	..	0.2	0.4	..
▪ 지방 ³⁾⁵⁾	-3.5	-1.0	-0.2	-0.3	-0.4	..	-0.1	-0.1	..

주: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 포함

2)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3) 전기비, 연·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부동산원 지수 기준

4) 서울, 인천, 경기 5) 수도권 제외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된 만큼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